

연합회동정

악취·VOC 저감기술 세미나 및 상담회 성황리에 마쳐 울산·대구 700여명 참석으로 업무효율 꾀해



연합회(회장 이상호)가 지난 7월 3일 울산과 7월 5일 대구에서 개최한 악취·VOC 저감기술 세미나 및 상담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7월 3일 울산대 다매체강당에서 있는 경남지역 배출업소 대상 세미나는 낙동강환경관리청과 울산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울산/부산/경남환경기술인협회의에서 후원한 가운데 350여명이 참석, 악취방지법제정 배경을 비롯한 신기술을 발표해 환경관리업무의 효율화를 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손희만 낙동강환경관리청장을 비롯해 조홍제 환경기술개발센터장, 이상호 회장, 지역권 부회장 등 회원과 임원들이 참석해 참석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도 했다.

7월 5일 대구 계명대 바우어관에서 있는 행사는 대구지방환경관리청, 대구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대구경북/경북북부/경북동부환경기술인협회의가 후원한 가운데, 한기선



청장, 박상원 센터장과 이상호 회장을 비롯한 지역협의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300여명의 환경기술인들이 세미나를 경청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악취방지법 주요내용과 신기술, 지방이양화에 따른 환경업무지침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업무효율을 꾀하기도 했다.

한편 연합회는 향후 지속적인 기술세미나를 기획, 환경기술의 발전을 꾀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정보교류의 기회를 제공, 효율적인 환경관리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연합회임원동정

이상호 회장 악취·VOC저감기술 세미나 및 상담회 참석
이상호 회장은 지난 7월 3일과 5일 울산과 대구지역에서 각각 개최된 악취·VOC 저감기술 세미나 및 상담회에 참석, 개최사를 통해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상호 회장 '환경기술인력수급 및 육성에 관한 연구관련 워크샵'에서 주제 발표 이상호 회장은 환경관리공단이 주최한 '환경기술인력 수급 및 육성에 관한 연구관련 워크샵'에서 환경기술인력 실정에 대해 주제발표를 가졌다.



이용운 초대회장 '대한민국 환경기술장' 수상금 후원 이용운 초대회장은 지난 6월 24일 실시한 제14회 '대한민국 환경기술장'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100만원을 후원했다. 이 후원금으로 금강대장 30만원, 금장 20만원, 은장에 각 15만원, 동장 각 10만원씩 전달했다.



권숙표·박창근 고문 '대한민국 환경기술장' 부상 후원 연합회 고문인 권숙표 박사와 박창근 위원장(아래)은 지난 6월 24일 개최한 제14회 '대한민국 환경기술장' 시상식에서 「21세기 환경·신에너지대책」 3권짜리 9권을 후원해 수상자들을 위로했다. 이 책은 박창근 위원장이 집필대표로 참가했으며, 1권 환경, 2권 에너지, 3권 용어편으로 총2200페이지 분량으로 135만원 상당이다.



박전수 감사 '환경홈다터 워크샵'에서 시범사례 발표 박전수 감사는 지난 7월 25일에서 26일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센터장 협의회에서 주관한 '환경홈다터 워크샵'에 참가, 지금까지 실시해온 환경기술지원 수행기관으로써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워크샵은 전국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위주로 운영 중인 환경홈다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홈다터정책에 대한 설명과 지역센터의 향후 추진계획 및 문제점, 개선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이다.

■경남협의회

환경관계법규 개정법 해설 및 신기술 세미나 개최



경남협의회(회장 황수남)는 지난 6월 28일 개정법(대기, 폐기물) 해설 및 신기술 소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동남공단전시장 시청각실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100여명의 회원 및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산대학 환경바이오

테크학부 조훈성 교수의 국내외 환경동향 및 신기술 소개에 이어 (주)나노엔텍(대표 한기백)의 부유물질 여과장치(3FM)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이어 경상남도 환경정책담당 김재석 사무관의 개정법 해설과 경상남도 환경정책 설명과 함께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특히 공단지역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업무가 지방자치 단체로 이관되는 시점이 늦어짐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발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회원(사)의 환경현장 실무에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한편 협의회장은 6월 27일 마산 올림픽회관에서 '전 국토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조사, 교육사업, 친선교류 및 전 국민의 환경친화적 생활양식 정착과 자연환경보전감시운동을 위하여' 설립된 (사)지구환경보전운동 경남총괄 본부(본부장 장부규 박사) 발대식에 고문자격으로 참석하여 "지구환경보전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역사이다. 우리는 역사의 중심에 있기에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남보다 발 빠르게 대응하자" 라고 축사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악취·VOC 저감기술 세미나 참석

경남협의회(회장 황수남)는 지난 7월 3일 연합회가 주최하고 낙동강환경관리청, 부산·울산·경남협의회, 울산지

역 환경기술개발센터가 후원한 울산대학에서 열린 악취 VOC 저감기술 세미나에 회장단 및 회원 30여명과 함께 참석하였다.

악취방지법 제정의 배경 및 고정배출원을 악취배출시설로 규정하여 악취규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출업소의 방지시설 추가설치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경남협의회장은 손희만 낙동강환경관리청장, 이상호 연합회장, 장준영 전연합회장, 이종영 울산협의회장, 김진택 부산협의회장, 조홍제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장, 백대선 사무국장, 박규대 영남권부회장, 문종욱·하중호 전경남협의회장 등과 함께 한 좌담회에서 복잡 다양화되어 가는 악취문제 해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였다.

또한 협의회장은 지난 7월 2일 경상남도지사(김혁규) 취임식에 내빈자격으로 참석하였다.

황수남 회장-

지구환경보전운동 경남본부 고문자문회의 참석

경남협의회 황수남 회장은 지난 7월 8일 지구환경보전운동(지환보) 경남총괄본부 고문 자문단회의에 기술고문자격으로 참석하였다.

김해지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김해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윤태석 지환보 경남본부명예회장, 장부규 교수(지환보 경남본부장), 손희만 낙동강 환경관리청장, 송은복 김해시장, 현길현 김해시부시장, 장효열 김해시 사회환경국장, 이원보 경남의사회장, 신동민 마산한의사회장(지환보자문위원), 광정순 낙동강권본부장, 박배흠 연안권본부장 장영재 교수(지환보 운영위원), 조훈성 교수(지환보 전문위원), 박홍제 교수(지환보 김해지부장)등이 참석하여 지구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심각성, 효율적 대처방안등과 개발과 환경보전을 연계한 지속가능한 김해환경보전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또한 9월 지역주민의 소리와,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환경관계 세미나를 열기로 하였다.

■서울협의회/경기서부공단협의회

농·어촌 체험행사 실시

-100여명 회원가족 참석, 장봉도에서

서울협의회(회장 이귀향)와 경기서부협의회(회장 이상기)는 지난 6월 22일에서 23일까지 1박 2일로 인천 소재 장봉도에서 농·어촌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회원 및 가족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인천 농업주관으로 조개 및 새우·고동잡기 등 어촌 체험을 하고, 감자와 양파 수확 및 옥수수, 포도, 상추, 오이, 수박밭 등을 견학해 견문을 넓혔다.

가족의 소중함과 농·어촌의 실태를 몸소 실천해 본 이번 행사는 회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한편 서울협의회는 지속적으로 농촌과 어촌 생활의 체험 기회를 가질 계획이다.



전북협의회

개정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설명회 개최



전북협의회(회장 박전수)는 지난 6월 21일 펜아시아페이퍼코리아(주) 전주공장에서 회원사 환경관리인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설명회”를 가졌다.

박전수 회장은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 기념식과 체육대회에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준 행정관청과 회원사, 그리고 환경산업체의 후의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환경인들은 소속과 직위를 떠나 환경파수꾼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바 책임을 다하자”고 인사말을 통해 밝혔다.

전주지방환경관리청 정기석, 장현영 담당자로부터 관련 법 설명과 질의 답변 등 사업장 환경관리 중점사항 등의 강의로 업무이해를 높였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환경관계법규 대기편과 폐기물편을 배포하여 회원사들의 업무효율을 꾀했다.

또한 6월 12일에는 전라북도 환경기술지원활동(단장 전라북도 서기관 김재석)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북협의회의 임원들이 기술지원단원으로 활동해오면서 느낀점과 개선할 내용 등을 토론하기도 했다. 이날 전북협의회 임원들은

행정기관의 단속위주의 점점에 대해 선지도 후 단속의 계몽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했다.



▲ 지난 6월 12일 환경기술 지원활동 워크숍을 개최해 그동안 기술지원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점을 교류했다.



「환경기술인」을 읽으면 환경보전이 빨라집니다.